

조개가 고약을 품고

# 매약(賣藥)에 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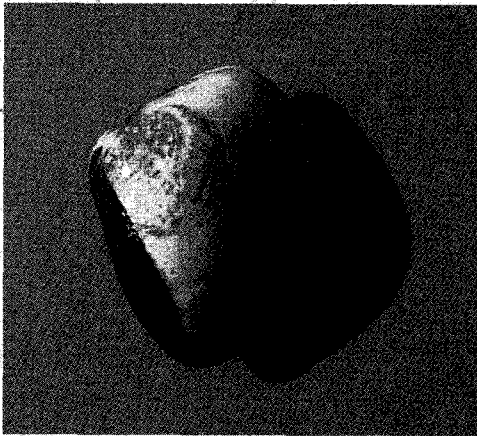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없는 애들은 저리가!!

배암(뱀)을 3일 동안 꼭~ 고와 만든 이 약 먹어봐!

아랫도리가 축축한 분, 자다가 식은땀이 흐르는 분, 얼굴이 께컘한 분...

60년대 마산시외버스 정류장 근방에 살았던 필자는 이런 약장사의 매약행위를 수없이 보아왔다.

꼭 암생이(흑염소)똥동 같은 것을 민병통치약인냥 판매했던 이 “매약”은 우리 한국 의학의 초기 상품화된 약이다.



매약(고약)



조선물산공진회 포스터

19세기 후반 재래한약방(한약재)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선약업이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간편하고 먹기 좋은 신약 (丸(환))=알약, 散(산)=가루약, 膏(고)=고약)을 무기로한 “왜약”(일본산 매약)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인에게 제일 흔한 병이 위장장애, 소화불량이었다.

1897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세계적인 여행가인 “비숍”여사는 “조선인은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잡식가”라고 했고 이 시기에 선교의사 “에비슨”은 조선인은 많은 양의 식사를 빨리 먹는다고 했다.

“소화제는 활명수” 필자는 지금도 소화제는 활명수이고 활명수는 소화제라는 등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활명수가 제일 오래된 매약인데 1897년 동화약방 주인인 민병호가 재래궁중비방에 서양 약을 혼합 처방한 것으로 1909년 “부채표”로 등록함으로써 현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상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는 그 당시 생산된 상품의 용기나 상표 등의 실물을 찾고 있었지만 매약은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몇년전 몇대째 안동지방에서 한약방을 했던 지순의 집을 정리해주었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된 물품이 “조개”였다. 한약재에 대해 잘몰라 조개가 한약재 재료인 줄 알고 다 버리고 약저울, 약상자, 그리고 처방전, 등만 가져 왔었다.

재작년 우연히 지방골동품집을 방문했는데 “조개”가 비싼여성용품(비녀,노리게 등)이 진열된 유리뚜껑이 달린 함지박에 진열된 것이었다.

저것도 팔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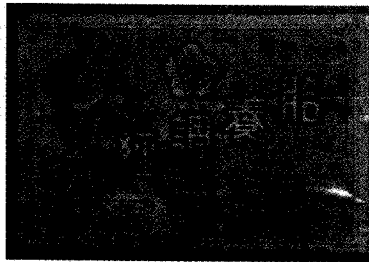
내 또래인 것 같은 점포 주인에게 비아냥스럽게 물었는데....

3만원 만 주소!

필자는 정신이 바짝들었고 이것이 개화기 때 “고약”을 담았던 용기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던 것이다.



조고약 (1920년대)



태양조경환 (1920년대)



명신환 (1920년대)

1915년 한국제약업이 일대 혁신적인 사건이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통치 5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는데 그들이 5년 동안의 조선치정을 홍보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제 동원하다시피 공진회(박람회)를 관람하게 했는데 당시 경성인구와 맞먹는 26만 명이 동원되었고 이 공진회에 조선매약주식회사가 “명신환”회평당이 “태양조경환”천일약방이 “조고약” 등의 매약을 출품했고 이를 계기로 이들이 전국 유통망을 가집으로써 일제 강점기동안 이들 업체가 대표적인 민족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